차이나킹하이웨이 (900120)

중초약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생산업체로 지속적인 실적개선 전망

이주영 (02) 3772-1573
joylee@goodi.com

6월 결산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PER (배)	PBR (배)
2007.06	171.5	57.8	58.6	32.3	58	64.1	37.0
2008.06	464.8	204.9	205.6	139.7	249	14.8	10.6
2009.06	868.5	413.3	413.5	307.6	549	6.7	4.1
2009.12	542.6	207.2	206.5	151.7	-	-	3.2

자본금:			45.4억원
공모가격:			3,700원
주요주주:	왕위에런		56.1%
	짱춘후이		4.9%
	양위펀		4.9%

액면가	0.05USD	발행주식총수	80,000천주
시가총액	2,960억원	공모주식수(30.0%)	24,000천주
매출비중(09.12)	건력강편 18.0%, 금려강캡슐 15.1%, 삼청보편 12.6%	수출비중(09.12)	0.0%

자료: 차이나킹하이웨이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자본금은 환율 1,135.5원/$ 적용

전통적인 중초약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동사는 중약기반의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복건금산대도(복건성 복주시)를 한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케이만군도에 2009년 2월 24일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복건금산대도는 2009년 12월 기준 총 20개의 총판대리상, 450개의 도매상, 2,600개의 판매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거점도시는 동부 해안지역이나 점차적으로 중서부 지역으로 판매망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 복건금산대도의 주요 원료는 동충하초(구입원재료의 25.3%), 서양삼(10.2%), 송이(5.4%) 등의 전통적인 중초약이며 주요 제품은 건력강편(남성전립선질환예방), 금려강캡슐(여성갱년기증상완화), 삼청보편(여드름치료/위장기능강화), 건뇌령캡슐(정신적피로회복/기억력감퇴억제) 등이 있다. 한편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수많은 영세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나 연 매출액이 1억위안을 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고 허위광고, 모조품 증가,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수입산 건강식품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암웨이(뉴트리라이프)가 2008년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약 0.6%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7위의 건강기능식품 업체이다.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 및 생산시설 보유로 지속적인 실적개선 가능할 전망

동사의 실적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에 기반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에 따라 외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수익성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동사는 중초약의 유효성분을 추출/배양/발효하는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천연에서 자생하는 고가의 동충하초를 증식/배양해 주요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효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원가절감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동사의 실적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인의 총지출에서 건강식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0.07%로 선진국 2%대비 크게 낮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GMP수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장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30.1% 수준

동사의 공모후 발행주식총수는 8,000만주이며 이중 최대주주인 왕위에런 4,488만주(56.1%)와 상장전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4인 1,112만주(13.9%)는 상장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에 따라 상장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400만주로 총발행주식수의 30.1% 수준이다. 한편 동사는 888억원의 공모자금중 생산능력 확충 및 물류기지 확보에 향후 2년간 377.9억원, 연구개발에 190.0억원, 광고에 240.2억원, 차입금 상환에 3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대표주관회사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동 자료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소개자료이며, 매수추천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의미가 아닙니다.